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6.70원 상승한 1,186.50원에 마감
------	------------------------------

7일 환율은 전일대비 6.70원 상승한 1,186.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20원 상승한 1,185.00원에 개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재부상으로 전일 하락 분을 회복하며 갭업 출발한 뒤 1,18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했다. 달러 강세와 국내 증시 하락으로 상승 시도하였으나 1,180원 후반에서 네고물량과 커스터디 물량 등으로 변동성은 제한되며 전일대비 6.70원 상승한 1,186.5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078.89원이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5.00	1188.70	1185.00	1186.50	1187.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72.74	1082.96	1072.74	1082.80

금일 전망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1,190원대 초반 등락 예상
-------	--------------------------------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90원대 초반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0원)을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86.50원) 대비 5.95원 오른 1,191.85원에 최종호가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 훼손에 환율 상승 예상된다. 미 연준은 신종 코로나 인한 중국 경제 타격이 글로벌 경제로 전이될 수 있는 경제 전망의 새로운 위험으로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등 주요 기관들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었다. 이는 글로벌 위험 선호심리 훼손 및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요인으로 환율 상승 압력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및 당국의 개입경계로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8.67 ~ 1195.33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52.43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95원 ↑
-------	--

■ 美 다우지수 : 29102.51, -277.26p(-0.9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8.0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0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